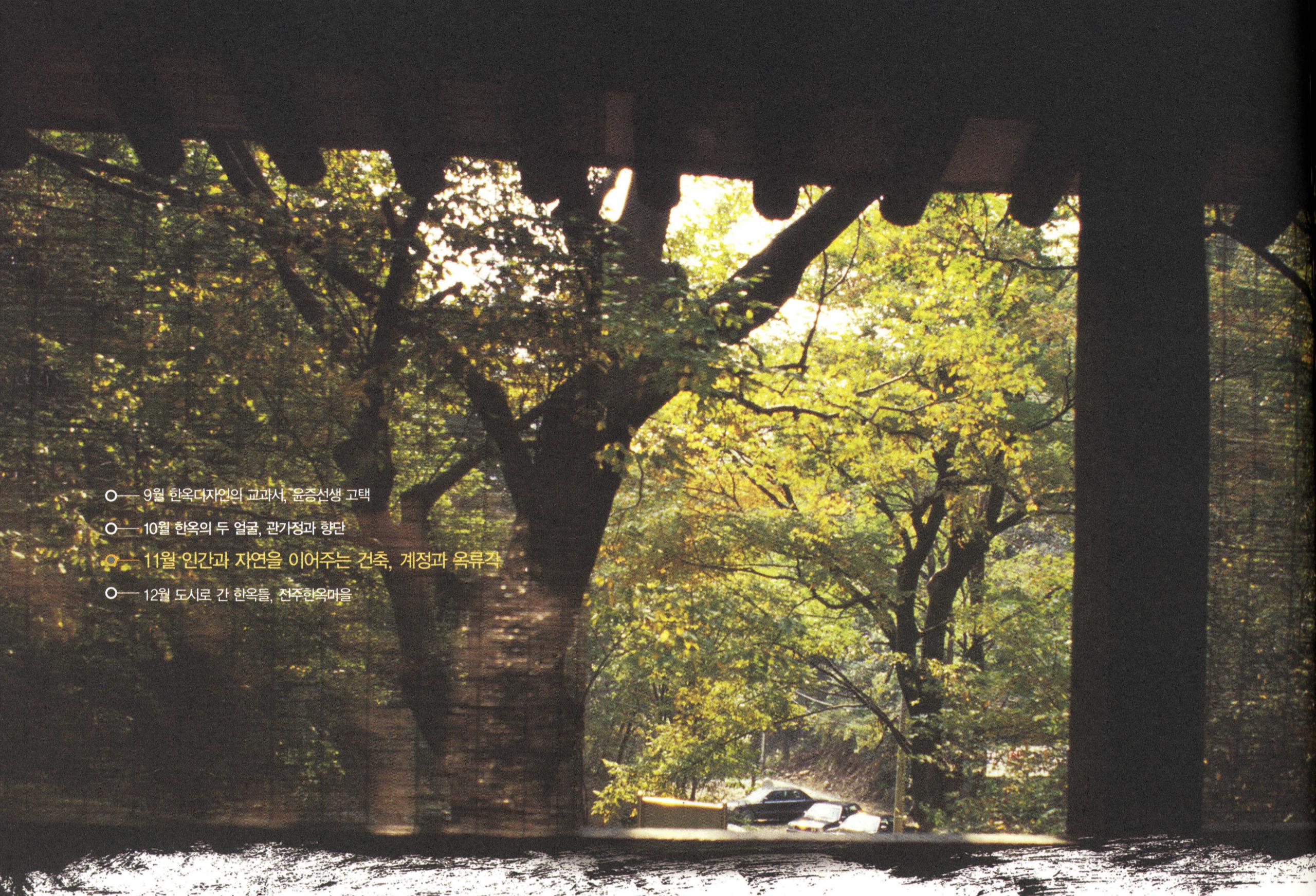


- 
- 9월 한옥디자인의 교과서, 윤증선생 고택
  - 10월 한옥의 두 얼굴, 관가정과 향단
  - 11월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건축, 계정과 옥류각
  - 12월 도시로 간 한옥들, 전주한옥마을

옥류각에서 본 계곡의 풍경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건축,

# 계정과 옥류각

글° 사진° 한필원° ATA 대표 · 한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현대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르 코르뷔지에 Le Corbusier는 지금부터 80여 년 전 그의 저서 『건축을 향하여 Vers une Architecture』의 서문에서 집과 건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집은 우리를 에워쌈으로써 적대적인 자연현상과 떼어놓고, 우리에게 인간적 환경을 제공하면서 인간적 경계가 되어야 한다. .... 건축, 그것은 감동을 주는 것이다.



계곡에서 본 옥류각

계정渓亭을 찾아간다. 계정은 회재 이언적[1491~1553] 41세 되던 1531년 정치적인 이유로 중앙 관직을 박탈당하고 돌아와 은거했던 ‘독락당’에 딸린 정자로 본래 부친이 지은 건물을 개수한 것이라 한다.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의 계곡 서편을 따라 숨은 듯 자리한 독락당, 그 안으로 접어들어 긴 담을 따라가니 담은 기둥을 만나 끝이 난다. 그리고 두 칸의 텅 빈 공간에 계곡의 영롱한 풍광이 담긴다. 독락당 일곽을 구분하는 담으로 잠시 가려졌던 계곡은 바위 아래에 숨었다 나타나는 시냇물 같이 작은 정자의 앞에 다시 펼쳐진다.

옥류각玉溜閣은 동춘당 송준길[1606-1672] 1639년 지은 정자이다. 옥류각과 계정 모두 사후에 동국18현으로 모셔진 대학자의 별업別業: 정자나 서당 같은 본 주거 외의 거처이다. 세상에서 벗어나 사색과 학문을 하는 공간인 별업을 두는 것은 주자朱子 아래 시작된 성리학자의 전통이다. 회재의 본 집은 계정의 동쪽, 안강평야 건너편에 있는 양동마을에 있고, 동춘당의 본 집은 옥류각 아래의 마을, ‘송촌’에 있다.

옥류각을 찾아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의 뒷산인 계족산으로 오른다. 웜푹 가라앉은 곳에서 정자가 빼따닥하게 투시도적으로 드러난다. 정자의 정면은 나를 향하고 있지 않다. 가까이 가보니 놀랍게도 건물 아래 기둥 사이로 계곡의 물이 흘러내린다. 계곡에 들어앉은 정자로 오를 길을 찾자니 ‘비래암’과 마당이 나타난다. 그렇게 뒤로 휘돌아 외나무다리를 건너 정자로 들어가 앞을 보니 새삼 내가 이런 곳을 거쳐 왔던가 하는 생각이 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들어온 자신을 발견한다.



계정을 통해 본 계곡의 풍광



자연속에서 자란 듯한 계정

이렇게 정자는 ‘인간적 경계’를 허문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어느새 계정 혹은 옥류각이라는 건물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것이 안내하는 나무와 물과 바위가 눈에 들어올 뿐이다. 여기서 느끼는 감동은 내가 자연 속에 있다는 새삼스런 자각에서 오는 것이라. 정자는 그 자신이 어떤 감동의 원천이 되려는 건축이 아니다. 계정과 옥류각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대신에 감동의 장면으로 우리를 안내해 줄 뿐이다.

계정과 옥류각 같이 오래된 정자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인간과 자연을, 그리고 건축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던져준다. 르 코르뷔지에와 같은 방식으로 정자를 본다면 그것을 건축이라 부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자연은 인간에게 적대적인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건축이라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정자를 이해할 수 없다.

정자 건축은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만들고 자신을 감추어버리고 만다. 계정과 옥류각 역시 모두 곁으로 드러나지 않으려 애쓴 건축이다. 그것들은 주변의 평평한 땅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 그것과 맞닿아있을 뿐이다. 대신에 계곡의 낮은 곳에 자리해서 자신의 존재를 최대한 낮추었다. 마을의 입구에 세워지는 정자는 멀리 내다보기 위해 땅바닥에서 성인의 키만큼 높이 들어 올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자연 속에 들어있는 계정과 옥류각은 모두 낮게 깔려있다. 그것들은 자연의 품으로 비집고 들어가 그 기운의 흐름을 그대로 따름으로써 이미 자연과 하나가 되었다.

계정은 두 열의 기둥 중 절반, 옥류각은 모든 기둥을 그 부근에서 가장 낮은 지점인 계곡 바닥에 있는 바위에 얹었다. 디디고 선 높이가 모두 다르니 기둥의 길이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시공의 용이함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나쁜 방식으로 지어진 것이다. 가장 어렵게 가장 드러나지 않게 지어진 두 건물이 오랫동안 아름다운 건축으로 칭송받으니 이를 ‘건축의 역설’이라고나 할까.

계정이나 옥류각 모두 인간의 공간인 마당에서 보면 높이가 매우 낮은 단층건물이다. 그러나 자연의 공간인 계곡에서 보면 모두 엄연한 중층 누각이다. 한 층을 자연 속에 묻어버린 이 정자들은 조금은 딱딱한 인간의 공간에서 넉넉한 자연의 품으로 시원하게 눈길을 열어준다. 주변의 경관으로 시선을 열어주는 정자를 통해 무한한 공간으로 정신을 확장시키는 것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자연관이었다. 계정과 옥류각은 현실적인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자연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조망이 좋은 곳에 누정<sup>樓亭</sup>을 짓곤 한 사대부 전통의 증거물들이다.



계곡에서 본 계정



마당에서 본 옥류관

정자는 대개 온돌방과 마루로 이루어진다. 물론 개방적인 마루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계정은 다섯 칸, 옥류각은 여섯 칸의 건물이다. 계정은 다섯 칸을 꺾어서 훌겹의 그자집이 되었고 옥류각은 여섯 칸을 두 겹으로 포개서 일자一字의 겹집이 되었다. 자연에서 바라보면 두 정자 모두 정면은 세 칸인데 그 중 두 칸은 마루이고 한 칸은 방이다. 계곡을 위에 가설된 옥류각의 방에는 온돌이 설치되지 않았다. 마루 앞뒤로는 기둥만 있을 뿐 벽이 없다. 이렇게 정자건축은 온돌과 마루가 한 몸체에 설치되고 기둥으로 건축공간이 설정되는 한옥의 특성을 잘 드러내준다. 비록 단출하지만 정자를 ‘한옥다운 한옥’이라 불러도 좋을 듯하다.

정자의 한쪽은 인간의 공간이고 다른 한쪽은 자연의 공간이다. 계정과 옥류각에서 인간의 마당은 높고 자연의 계곡은 낮다. 오늘날의 건축가는 묻는

다. 건물을 어디에 놓을까? 인간의 공간에? 아니면 자연의 공간에? 정자를 지은 그 건축가의 조상은 둘 다 답이 아님을 말해준다. 정자는 인간과 자연의 공간 모두에 놓여졌다. 인간의 공간에서 바라보면 정자는 마당의 연장이요 담의 연속이다. 계정이나 옥류각의 마루는 모두 그것이 접한 마당의 높이와 거의 같게 맞추어졌다. 반면에 자연의 공간인 계곡에서 바라보면 계곡의 암반을 디디고 선 정자는 마치 나무들처럼 자연에서 높이 자란 유기체이다.

이렇게 인간과 자연에 두 다리를 걸친 정자는 인간의 공간을 이끌어 자연으로 합류시켜준다. 그래서 정자는 자연을 향한다. 현대건축은 예외 없이 인간에게 그 정면을 내보이는 반면, 정자는 자연을 향해 정면을 드러낸다. 여기서 정자는 인간에게 보이기 위한 건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인간의 공간인 후면으로 정자에 들어가면 그 전면으로 자연의 공간이 전개된다. 정자는 인간이 자연이고 자연이 인간이라는 생각이 만든 건축, 그 둘이 합일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건축이다.

언젠가부터 나는 건축물 앞에서 이렇게 묻곤 한다. ‘이 건물이 없다면?’ 씁쓸하게도 많은 경우 그 답은 ‘참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을 텐데’이다. 오늘 계정과 옥류각 앞에서 같은 질문을 한다. ‘이 정자가 없다면?’ 우리는 애써 인간의 공간을 경계 지으려 했을 테고 그 결과 자연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

◆ 12월호에는 ‘도시로 간 한옥들, 전주한옥마을’이 소개됩니다.